

한국의 태국 연구: 동향과 과제*

김흥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이미지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내 태국 연구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그 특성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대되었으며, 현재까지 양적 성장을 충실히 달성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내 태국 연구는 언어·문학·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들어 태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태국 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서 학술 지 간 분리 양상 극복, 차세대 연구자 양성, 태국인 유학생(졸업생)의 지속적 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단행본 발간을 위한 학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제어 태국, 한국, 동남아시아, 태국 연구, 사례 연구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과 태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태국은 1949년 10월 대한민국을 공식 승인한 이래, 1950년 11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8년 뒤인 1958년 10월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태국은 한국의 아홉 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1960년 3월 주 태국 한국대사관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6).

이 논문은 한국동남아학회 2016년 연례학술대회(2016. 8. 27)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고를 심사해주시고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고에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래프 및 표 등을 일부 삽입할 수 없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 단행본 발간 때 보완 공개할 예정이다.

설치되었고, 1961년 7월 주한 태국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태국은 정치·외교적으로 한국과 아주 가까운 관계다. 냉전체제하에서 양국은 공산주의에 함께 대항했으며,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관계에서도 양국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태국은 한국과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 동남아 투자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하다. 2013년 기준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약 167만 명으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 음반 및 게임에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타이마사지, 태국음식과 영화 등을 중심으로 태국문화가 빠르게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6년과 1982년에 각각 한국외국어대학과 부산외국어대학¹에 태국어과가 설치되면서부터다. 1988년과 1991년에는 한국태국학회와 한국동남아학회가 각각 설립되면서 국내 태국 연구는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다수의 태국 연구자들이 배출되었고 연구실적 또한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어문학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이 발표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내 태국 연구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그 특성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국’을 주제로 한 석·박사학위 논문,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 출판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국 내 태국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태국 지역 중점연구자들의 학위 취득 현황과 연구 동향을 분석해 국내 태국 연구자의 특성을 고찰하고 태국 연구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태국 연구의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에서의 태국 연구를 돌아보고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향

¹ 본문에서는 대학/대학교 구분 없이 모두 ‘대학’으로 표기를 통일했다.

후 국내 태국 연구의 질적인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RISS)에서 주제어를 ‘태국’과 ‘타이’, ‘타일랜드’로 각각 검색하여 석·박사학위 논문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전수조사했다. 검색된 목록에서 태국과 직접 관련 있는 연구만을 선별해서 시기별·분야별로 분류 정리하여 그동안 태국 연구의 흐름과 추세를 파악했다. 또한 태국 관련 주요 학술지인 『한국태국학회논총』, 『동남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에 대한 세부분석을 추가했다. 이들 학술지 분석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논문검색 기능을 이용했다.² 단행본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 이외에 국내 온라인서점의 검색 기능도 이용했다. 그밖에 필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문에서는 모든 연구결과물의 제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연구물만을 선택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방대하고 제한된 자료수집 방식으로는 한국의 태국 관련 연구를 모두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은 당연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양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질적 수준의 고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한국의 태국 연구 현황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² <http://www.k-thaistudies.or.kr/>(한국태국학회, 『한국태국학회논총』), <http://cseas.hufs.ac.kr/>(한국외국어대학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http://www.kaseas.org/>(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II. 국내 태국 연구의 현황

1. 석·박사학위 논문

국내 태국 연구 현황을 보여줄 유용한 자료 중 하나가 석·박사학위 논문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태국’과 ‘타이’, ‘타일랜드’를 키워드로 각각 일차적으로 검색하여 선별한 후, ‘방콕’, ‘아유타야’, ‘치앙마이’ 등의 지역명으로 이차적으로 검색하여 태국과 관련된 학위 논문을 선별했다.³ 논문 제목에서 위에서 제시한 ‘태국’ 등의 키워드가 직접 사용된 경우만 분석했다. 즉 ‘아세안’, ‘동남아’, ‘동남아 주요국’ 등과 같이 태국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태국’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모든 학위 논문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석사논문 18건, 박사논문 3건을 추가했다.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연구자에 의한 태국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학위 취득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논문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연구자의 해외 학위논문 또한 중요한 분석대상이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필자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에 포함시켰다.

태국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시기별로 1970년 이전, 197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나누어 논문 제출 현황을 분석했으며, 분야별로 7개 분과, 구체적으로 경제·경영·무역, 정치·외교, 언어·문학·교육, 역사, 사회·문화, 선교·신학, 이공 및 기타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까지 370건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1990년대 중

³ 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이 태국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논문은 제외했다.

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점 연구자의 학위 논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방법을 추가로 선택했다.

반(1996~2000) 이후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2011~2015)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 제출된 태국과 관련된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은 1967년 “동남아 시장의 건오징어 수출 증진책에 관한 연구: 태국시장을 중심으로”(임종욱, 연세대학)⁵이며, 태국 관련 국내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은 1968년 태국인이 서울대학에 제출한 언어·문학·교육 관련의 “Demand and Suppl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ailand”(Pratom Sangswarn, 서울대학)이다. 한국인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보다 8년 뒤인 1976년 “태국의 경제사회 개발계획과 개발재정에 관한 연구”(고홍명)라는 제목으로 한양대학에 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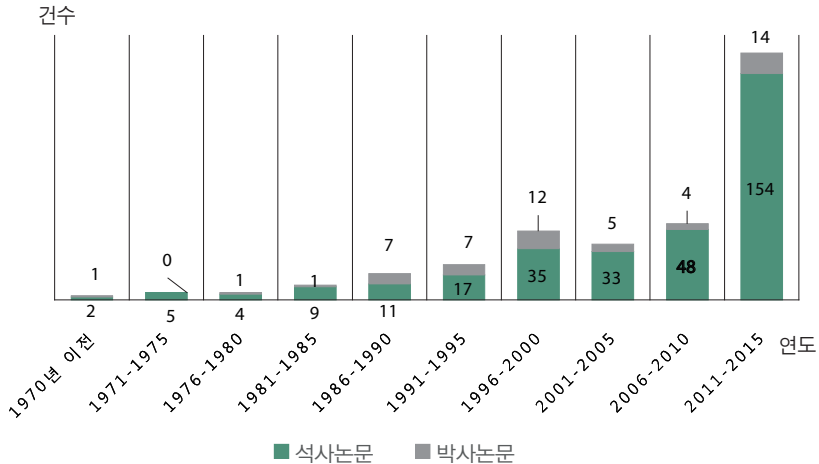
1973년에 송인서는 “쥘라롱껀대왕과 태국의 근대화”(고려대학)라는 제목으로 역사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학위를 취득한 이듬해부터 그가 초기 태국 연구를 견인해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태국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⁶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약 10년 사이 한국외국어대학 태국어과 출신 연구자들의 석사학위 논문들이 집중 배출되었다. 최창성(1976), 이한우(1977), 차상호(1980)의 논문을 시작으로 문인원(1982), 황규희(1983), 이병도(1984), 안종량(1984), 김홍구(1984)의 논문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되었다.

한편 이한우는 1986년 태국 씨나카린위롯대학(Srinakharinwirot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창진도 같은 해에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태국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차상호와 김홍구는 1990년에 각각 동국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윤진표는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진표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비교연구했다. 황규희는 1993년 동아대학에서, 조홍국은 1993년 독일 함부르크대학(University of Hamburg)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글의 중점 연구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⁵ 논문명의 한자 표기를 본고에서는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다.

⁶ 송인서는 1974년 “Rama V(1868~1910) 시대의 태국의 사회개혁에 관한 소고”(송인서, 『史學志』 8)라는 학술지 논문을 시작으로 태국 연구 초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에 총 7건의 역사 분야 논문을 게재한다. 1980년대 이전 태국 관련 논문은 총 1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그중 7건이 그의 논문이라는 사실에서 초기 태국 연구를 견인해왔다고 할 수 있다.



주: 국내 학생 및 국내 외국 유학생, 국내 학생의 해외 학위 포함.

그림 1 태국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5년 단위 시기별 추이

않지만 전제국도 1990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림 1을 보면 1996~2000년과 2011~2015년에 학위 논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996~2000년에 논문 수가 증가한 이유는 이 기간 중 태국에서는 1997년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1997년 신헌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경제적 연구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의 논문을 보면 경제·경영·무역 관련 논문이 15건으로 1991~1990년 6건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한편 같은 시기 언어와 문학 분야의 논문도 크게 증가했다(그림 3 참조).

한편 2011~2015년 사이에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경제, 문화적 교류 확대에 따른 태국에 대한 수요 증대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다. 2014년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태국 양국의 교역규모는 2008년 100억 달러에서 2009년 77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에는 다시 106억 달러로 회복하고, 2011년에는 13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다.⁷ 2009년 세계

⁷ 2012년 136억 달러, 2013년 133억 달러로 나타났다(외교부, 『태국개황』, 2014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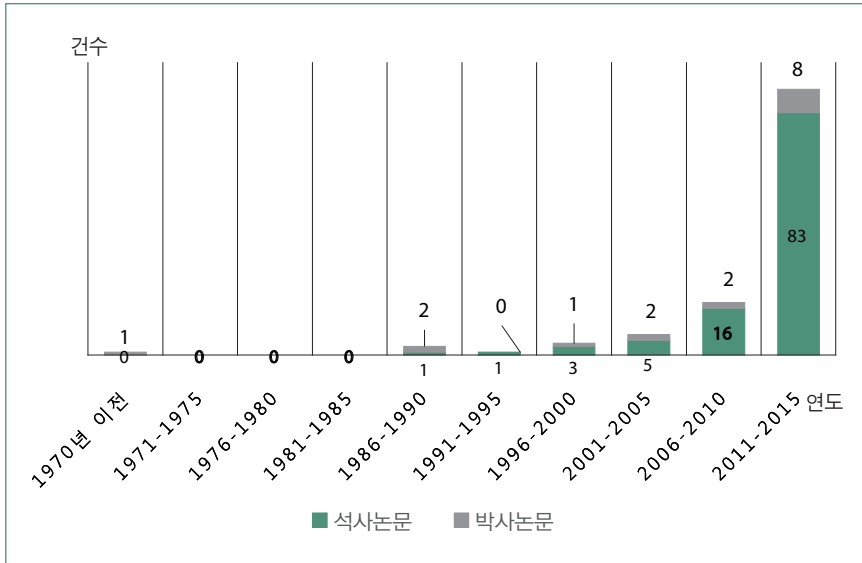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5년 단위 시기별 추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무역량이 일시 감소했으나, 2010년 세계 경기회복과 한·태국 FTA 발효(2010. 1)로 양국 간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 태국 투자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억 400만 달러였던 투자액은 1년 뒤인 2011년에는 6억 1,500만 달러로 약 6배 급증했다.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확대되어 2011년 한 해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최초로 100만 명을 초과했으며,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3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적·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내 태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2011~2015년 국내에 제출된 학위 논문의 절반 이상이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은 합계 125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를 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학위 취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1~2015년 총 학위 논문 168건 중 외국인 유학생의 논문이 91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를 점유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최초의 국내 박사학위 논문은 앞서 언급한 1968년 서울대학

표 1 석·박사학위 논문의 5년 단위 분야별 내역(건수)

	경제·경영· 무역	정치· 외교	언어·문학· 교육	역사	사회· 문화	선교· 신학	이공 및 기타	합계
1970년 이전	2	0	1	0	0	0	0	3
1971~1975	1	1	1	1	1	0	0	5
1976~1980	2	2	1	0	0	0	0	5
1981~1985	3	4	1	2	0	0	0	10
1986~1990	5	5	3	0	2	3	0	18
1991~1995	6	4	9	2	0	3	0	24
1996~2000	15	4	19	0	2	6	1	47
2001~2005	16	2	8	1	7	1	3	38
2006~2010	5	6	17	0	12	8	4	52
2011~2015	28	12	72	0	30	12	14	168
합계	83	40	132	6	54	33	22	370

주: 국내 학생 및 국내 외국 유학생, 국내 학생의 해외 학위 포함.

에 제출된 교육 관련 논문이다. 최초의 국내 석사학위 논문은 1990년 연세대학에 제출된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ailand by Korean companies” (Bhandhumachinda Nitipat)로 경제 관련 논문이다. 이들 125개의 학위 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한류’ 및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태국과 북한, 한국과 태국의 정치적 양자관계에 관한 정치 분야 논문 또한 눈에 띈다. 대부분 한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태국 정치를 다룬 연구들이며, 그 외에도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어·문학·교육 분야가 55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 27건, 경제·경영·무역 분야 20건, 이공 및 기타 분야 11건, 정치·외교 분야 9건, 선교·신학 분야가 3건이다. 이들이 학위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학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화여자대학(13건), 한국외국어대학(12건) 등의 순이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학위 논문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시기는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며(1996~2000년), 특히 2010년대 들어서(2011~2015년) 급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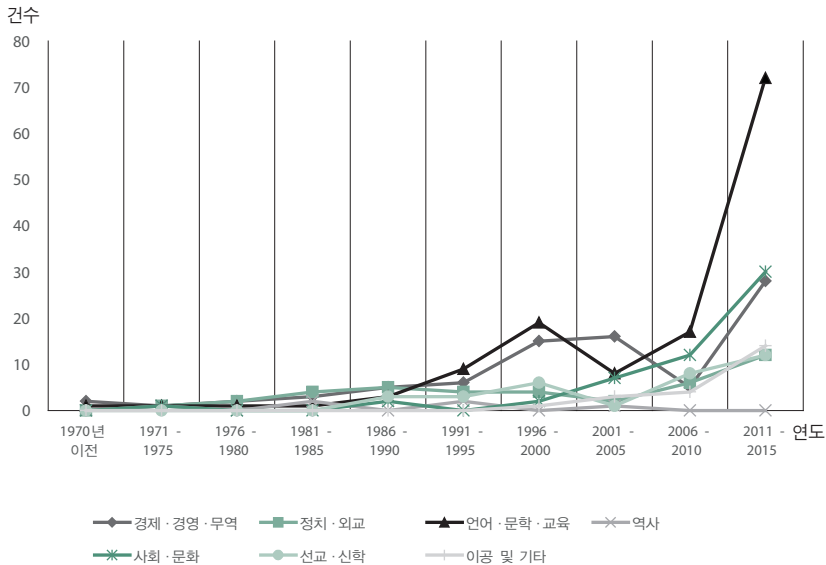


그림 3 석·박사학위 논문의 5년 단위 주요 분야별 추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경영·무역 분야와 언어·문학·교육 분야 연구는 1970년 이전에 처음 이루어졌고, 정치·외교, 역사, 사회·문화 분야는 1971~1975년 사이에, 선교·신학 분야는 1986~1990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공 분야의 논문이 2001~2005년에 처음 제출되었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언어·문학·교육 분야가 132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경제·경영·무역 분야 83건, 사회·문화 분야 54건, 정치·외교 분야 40건, 선교·신학 33건, 이공 및 기타 22건, 역사 분야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경영·무역 분야 연구는 1996~2000년에 크게 증가했으며, 2006~2010년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2011~2015년에 다시 급증하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 논문은 2006~2010년 6건에서 2011~2015년 12건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학·교육 분야 논문은 1990년대 크게 증가했으며(1991~1995년 9건, 1996~2000년 19건), 2011~2015년에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문화 분야 논문은 2001년 이후 증가했다. 선교·신학 분야는 2006~201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이공 및 기타 분야 논문은 2011~2015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공 및 기타에는 생태 및 건축, 의학, 해양 관련 논문들이 있었다.

2. 학술지 논문

태국을 분석대상으로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에서 ‘태국’과 ‘타이’, ‘타일랜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작자미상의 글과 중복 게재 논문, 뉴스 브리핑 및 개황, 학술대회 초록이나 발표문, 서평, 외국인 논문, 번역문, 기행문 및 현장 체험 보고, 연구총서, 연구자료를 제외한 합계 704건의 논문을 선별해서 분석했다.⁸ 학술지 논문에서는 제목에 ‘태국’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태국 소설명과 인명, 지명 등이 제목에 언급된 논문이 많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조사에 따르면, 태국 관련 최초의 논문은 1971년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발간하는 『延世論叢』 제8권에 김득렬이 영문으로 게재한 “Man’s Concept of God Reflects His Cultural Value System as Illustrated in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 in Korea, Japan, Thailand, Singapore, Indonesia: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선교·신학 분야 관련 논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태국을 비교대상국의 일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국사학회에서 발간하는 『史學志』 8권에 1974년 게재된 송인서의 “Rama V(1868-1910) 시대의 태국의 사회개혁에 관한 소고”가 태국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학술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김영수가 “태국과 파키스탄에 있어서의 정치와 군부: 군부의 정치개입을 중심으로 하여”(1975)라는 논문을 부산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법학연구』 18권에 게재했고, 같은 해 송인서의 “태국의 근대화과정: 쥘라롱껀시대(1868-1910)를 중심으로”(1975)라는 논문이 고려대학 아세아문제연구소의 『亞細亞研究(아세아연구)』 18권 2호에 게재되었다. 1980년 이전까지 합계 1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송인서의 논문이 7건으로 모두 역사 분야에

⁸ 편집실, 연구원자료, 협회명 등으로 표기된 글과 학생통역협회 등의 협회지는 제외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지역정보 관련 글도 제외했다. 외국인 논문은 기본적으로 분석에서 제외시켰지만, 한국인과 공동저자일 경우는 논문에 포함시켰다.

대한 논문이다.

분야별 최초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경영·무역 분야 최초의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 무역대학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世友』 5권 1호에 게재된 “한국기업의 대 태국진출방안에 관한 연구”(이상훈, 1983)이다. 정치·외교 분야 최초의 논문은 앞서 언급된 1975년 『법학연구』 18권 1호에 게재된 김영수의 논문이다. 역사 분야에서는 1974년 『史學志(사학지)』 8권에 게재된 송인서의 논문이 최초며, 사회·문화 분야 최초의 논문은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 화교의 Ethnic Identity 문제”(박은경, 『韓國文化人類學』 11(1), 1979)다. 선교·신학 분야 최초의 논문은 앞서 언급한 1971년 『연세논총』 8권 1호에 영문으로 게재된 김득렬의 글이다. 언어·문학·교육 분야에서는 “태국문자의 기원에 대한 고찰”(최창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16(1), 1983)과 태국이 비교연구된 “동양과 서양의 도서관학 교육에 관한 고찰: 미국·영국·태국·홍콩”(박은영, 『연구논총』 11, 1983)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공 분야 최초의 논문은 영남대학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환경연구』 4권 2호에 영문으로 게재된 “Squatter Housing Settlements in Bangkok, thailand”(우동기, 『환경연구』 4(2), 1984)이다.

태국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 건수는 증가 추세다. 태국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은 합계 704건으로 집계되었다. 1980년 이전 10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1~2015년에는 205건을 기록하며 지난 35년간 한국에서 태국 연구는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1981~1985년에 14건에 불과했던 태국 관련 학술지 논문이 1986~1990년에 4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1988년 『태국학회논총』이 창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기간 합계 46건의 논문 중 『태국학회논총』에 게재된 논문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1건이다.

1991~1995년과 비교해서 그다음 분기인 1996~2000년에 논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6~2010년 대비 2011~2015년에는 논문 수가 다시 한차례 크게 증가했다. 먼저 1991~1995년과 비교해서 1996~2000년에 논문이 급증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지적된다. 태국에 대한 관심 고조, 새로운 연구 인력

표 2 태국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5년 단위 분야별 내역(건수)

	경제·경영· 무역	정치· 외교	언어·문학· 교육	역사	사회·문화	선교·신학	이공 및 기타	합계
1980년 이전	0	1	0	7	1	1	0	10
1981~1985	1	5	4	2	1	0	1	14
1986~1990	10	12	12	7	2	0	3	46
1991~1995	5	13	9	9	8	0	7	51
1996~2000	17	17	33	12	20	0	9	108
2001~2005	20	30	36	8	18	0	6	118
2006~2010	15	33	43	7	37	2	15	152
2011~2015	24	22	82	14	46	2	15	205
합계	92	133	219	66	133	5	56	704

주: 내국인이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건수.

의 등장, 중견 연구자의 왕성한 연구 의욕과 주제의 다양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학술지 논문은 세 분야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97년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연구 결과물로서 경제 분야가 5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학·교육 관련 논문이 9건에서 33건으로, 사회·문화 관련 논문이 8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6~2010년에 비해 2011~2015년에는 언어·문학·교육 관련 논문이 43건에서 82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분야별 연구 추이는 전체적으로 언어·문학·교육 분야가 2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외교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가 각각 133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경제·경영·무역 분야(92건), 역사 분야(66건), 이공 및 기타 분야(56건), 선교·신학 분야(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문학·교육 분야는 1996~2000년과 2011~2015년에 급증하는데, 그 흐름은 앞서 살펴본 학위 논문의 분야별 추이와 비슷하며, 현재 언어·문학·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학위 논문에서 최근 급증한 선교·신학 연구⁹는 학술지 논문에서는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학

⁹ 2011~2015년에 선교·신학 분야는 12건으로 정치·외교 분야와 비중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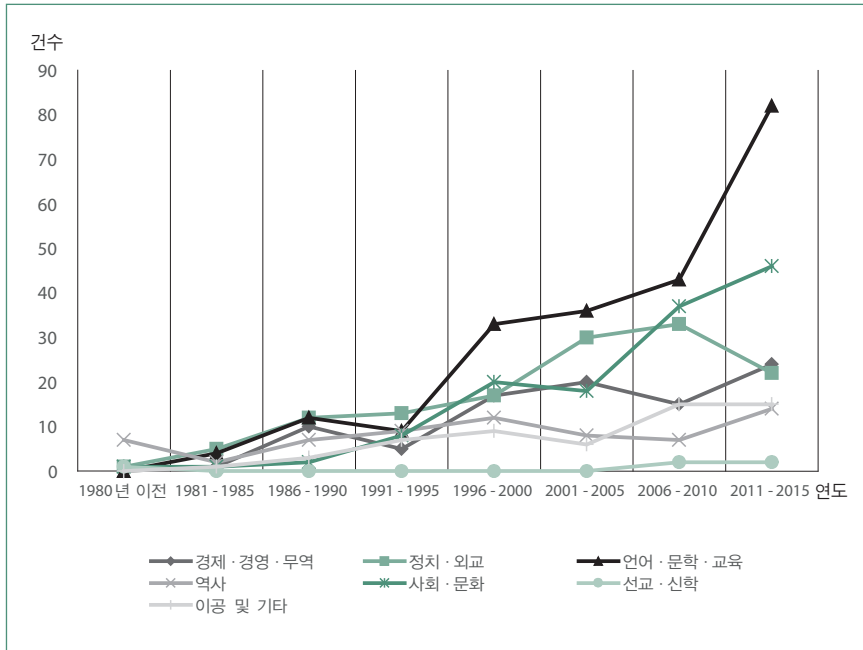


그림 4 태국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5년 단위 분야별 추이

술활동을 위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교 연구자들이 ‘학문’보다는 ‘실천’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역으로 학위 논문에서 소수였던 역사 분야는 학술지 논문에서 일정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역사학 학위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와 그림 4를 보면, 2001~2005년 기간 중 전 분기 대비 정치·외교 분야 연구가 17건에서 30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태국 내 정치변동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태국에서는 탁싨 정권의 등장 이후 1997년 헌법에 의거해 세 차례의 선거(2000년 상원의원 선거와,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의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탁싨의 등장과 적대적 정치세력 간의 대결구도, 태국 정당정치 변화 등 2000년대 이후 불안정한 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11~2015년 기간 중 언어·문학·교육 분야 연구가 43건에서 82건으

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에서 같은 분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이유를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어 교육과정이 최초로 개설된 곳은 송클라대학(Prince of Songkla University)이었다. 현재 태국에서는 전공 과정이 개설된 8개 대학을 포함해 4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편 2008년 태국 교육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중·고등학교(약 70개교)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했고, 2011년 한·태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60여 명의 한국인 교원을 태국 중·고등학교에 파견해왔다. 한국은 태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수학하는 중·고등학생 수는 약 10만 명인데, 그중 약 2만 명 이상이 태국인이다.

2016년 6월 20일 태국 대학총장협의회(CUPT)와 태국교육평가원(NIETS)은 한국어를 태국 대학입시 PAT(Professional & Aptitudes Test)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포함¹⁰시키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8년 태국 대학입시에서부터 한국어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대학입시에 한국어를 포함시킨 나라가 된다. 본고에서 나타난 태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의 급격한 증가와 언어·문화·교육 분야 논문의 증가는 이와 같은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의 열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단행본

태국과 관련된 단행본 발행은 앞서 살펴본 석·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발행 수와 비교하면 양적으로 현저하게 저조하다.¹¹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 및 여행안내서, 체험기 등 비 학술서를 제외하면, 태국과 관련된 단독 학술 단행본은 번역서 및 어학학습서를 포함해 87권에

¹⁰ 현재까지 태국 대학입시 제2외국어 선택과목은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팔리어 등이 있다.

¹¹ 단행본과 관련해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여 ‘태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으며, 그 이외에 국내 온라인서점의 검색 기능도 병행했다.

표 3 태국 관련 학술 단행본 5년 단위 주요 분야별 내역(권수)

	어학 · 문학	사회 · 문화	정치 · 외교	역사	경제	합계
1990년 이전	20	0	0	1	0	21
1991~1995	4	0	0	0	0	4
1996~2000	6	2	3	0	0	11
2001~2005	10	4	1	1	1	17
2006~2010	7	3	1	0	0	11
2011~2015	11	3	2	1	0	17
2016년 현재	4	2	0	0	0	6
합계	62	14	7	3	1	87

주: 2016년 현재는 2016년 7월 기준.

지나지 않는다. 그중 어학을 제외하면 25권에 불과하다.¹²

합계 87권의 학술 단행본은 어학 62권, 사회 · 문화 분야 14권, 정치 · 외교 분야 7권, 역사 분야 3권, 경제 분야 1권으로 구성된다.

단행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어 관련 서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 소속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집필되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 이전에 발간된 단행본 합계 21권 중 김영애의 『태국사』(1986)와 김영애의 문학 번역서 『짬렁, 내 삶의 이야기』(짬렁 씨므영, 1990)를 제외한 19권이 모두 어학 관련 서적이다. 최초의 어학책은 1966년 발간된 이교충의 『태국어 기초』이며, 3년 후인 1969년 최창성의 『타이어 연구』가 출판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총 5권의 강독, 작문, 문법과 관련된 태국어 학습서들이 출간되었으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총 13권의 어학책이 출판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1991~1995년 사이에 4권의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어학학습서가 2권이며, 태국 문학작품 번역서가 2권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정치 · 외교, 사회 · 문화 분야 학술 단행본이 출간되기 시작하지만 현재까지도 양적으로 미미한 상태다. 그 이전까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관광공사, 국제경제연구원,

¹² 개정판은 중복 산출하지 않았다.

관광산업개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세협회, 외무부,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아시아경제연구소 등에서 태국의 시장 동향을 단편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출판되었을 뿐이다. 경제 분야의 유일한 단행본으로는 안종량의 『태국경제의 이해』(2004)가 있으며, 역사 분야의 단행본은 김영애의 『태국사』(1986)¹³와 조흥국·소병국의 『불교군주와 술탄-태국과 말레이시아 왕권의 역사』(2004), 조흥국의 『근대 태국의 형성』(2015)이 있다. 태국과 관련된 단독 주요 학술 저·역서는 표 4와 같다.

지금까지 태국과 관련된 단독 학술 저·역서를 분석했지만, 지역을 태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를 포괄적 시각에서 다룬 태국 연구자의 저서 또한 눈에 띈다. 조흥국의 번역서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밀턴오스본, 오름, 2000)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소나무, 2009)가 대표적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복수의 ‘동남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엮은 학술 단행본의 발행이 활발하다. 그 예로 1994년 발간된 『동남아의 정치변동』(서울프레스사)에서는 윤진표가 “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의 과제”에 대해 집필했으며,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에서는 “태국의 상좌부불교와 정치”를 주제로 김영애가, “태국의 이슬람”을 주제로 이병도가 집필했다.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서울대학교출판부, 1999)에서는 박은홍이, 『한국 속 동남아 현상』(명인문화사, 2012)에서는 태국 연구자로서 김홍구, 이재현, 윤진표가 참여했으며, 『좁은 동남아시아』(술과학, 2012)에서는 태국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황규희, 노장서, 김인규가 집필에 참여했다. 그 외에도 『동남아의 정당정치』(오름, 2001)와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폴리테이아, 2005)에서는 윤진표가,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폴리테이아, 2005)에서는 조흥국이,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폴리테이아, 2005)과 『동아시아의 한류』(전예원, 2006),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명인문화사, 2014)에서는 김홍구가 부분집필을 담당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 국가별 연구에서 벗어나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흐름과 동남아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¹³ 2002년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표 4 태국 관련 주요 학술 저·역서(어문학 제외)

제목	저자 (역자)	출판 연도	출판사
태국사	김영애	1986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 군과 정치	김홍구	1996	전예원
태국 현대정치의 이해	차상호	1995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의 이해	한국태국학회	1998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학 입문	김홍구	1998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 정치와 군부	황규희	1998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 사회와 문화	쑤팻뜨라 쑤팻 (황규희)	2001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 현대 민주정치론	차상호	2003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의 전통 생활풍속	이한우	2003	뚜리문화사
태국 경제의 이해	안종량	2004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불교군주와 술탄-태국과 말레이시아 왕권의 역사	조흥국 · 소병국	2004	전통과 현대
태국불교의 이해	김홍구	2005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한권으로 이해하는 Thailand	김홍구	2006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불교와 국왕의 나라	조흥국	2007	소나무
한태 관계의 어제와 오늘	한국태국학회	2008	세종출판사
태국 정치입문	김홍구	2008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탁신 아시아에서의 정치 비즈니스	파쑹 풍파이젯 · 크리스 베이커 (정호재)	2010	도서출판 동아시아
동아시아와 태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태국학회	2011	한국태국학회
탁신과의 대화	툼 플레이트 (김이숙)	2013	끌리는 책
물의 신 나가: 태국과 서태평양의 문화적 기원	쑤멧 춤사이 (노장서 · 김인아)	2014	솔과학
한국-태국 관계사	정환승	2015	폴리테이아
근대 태국의 형성	조흥국	2015	소나무
춤 문화로 본 태국	서정록	2016	보고사
태국문화의 즐거움	김홍구	2016	스토리하우스

비 태국 연구자가 집필한 단행본 중에 태국을 일부 다루는 경우도 있다. 전남 대학 소속의 무역학자 강영문이 집필한 『동남아 지역연구』(두남, 2010), 『동남아 경제의 그늘과 무지개』(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동남아 이슬람문화와 비즈니스』(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등의 저서에서 태국이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행정을 비교한 행정학 교재 『비교행정론』(김광용 외, 박영사, 2004)과 아시아 각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개관적 성격을 지닌 단행본 『아시아의 이해: 사회와 문화』(천정용 외, 양서원, 2015), 동남아의 불교에 대해 정리한 『제왕과 불교』(정진화, 불교정신문화원, 2015)와 같은 단행본에서 태국이 일부 언급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 사회 편입과 함께 『다문화의 이해』(김하림 외, 조선대학교출판부, 2011)와 같은 단행본에서 태국이 언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내 태국 관련 단독 단행본 및 번역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태국 연구에 있어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저술의 번역이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짧지 않는 국내 태국 연구의 역사에 비해 학술 단행본 발간이 미미한 것은 태국 연구자들의 단행본 출판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내 학계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외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수정 보완된 학위 논문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한국은 학술지 게재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¹⁴ 또한 한국 학계 전반에서 요구되는 양적인 연구 실적물에 대한 압박감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단독 단행본 발간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생각한다. 또 일반 대중의 태국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그 이유다. 태국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여행’과 ‘요리’, ‘마사지’, ‘골프’ 등 여가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일반 대중에게 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단행본의 지속적인 발간이다. 교양적·학문적 저술과 번역서의 결핍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태국에 대한 관심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데 분명 걸림돌로 작

¹⁴ 그 예로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학위 논문이 전자도서관 등 웹상에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다.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요약본 등의 부분공개만 하고, 단행본으로 먼저 출판된다. 이는 출판되기 전에 웹상에서 전문이 노출될 경우, 출판사와 계약 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용한다. 그러나 단행본 출간을 위한 학문적 인프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는 일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태국 연구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III. 태국 연구의 특징

1. 태국 연구자의 분류

현재 한국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태국 지역연구자가 태국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 등 태국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다. 둘째, 특정 분과학문(Discipline)을 배경으로 하는 연구자가 연구대상 지역으로서 태국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비교 검토 대상의 일부로서 태국을 추가하는 경우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태국 관련 학부(어문학)를 졸업하고 태국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를 뜻하며, 후자는 비어문학 분야의 학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태국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태국 관련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그 후 태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를 뜻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 연구자는 모두 29명이다.¹⁵

태국어 전공자 그룹의 시기별 박사학위 수여자를 10년 단위로 나누어보면, 1990년 이전 3명, 1991~2000년 6명, 2001~2010년 5명, 2011~2016년까지의 6년간 6명으로 나타난다.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분야로는 언어학 7명과 문학 3명으로 어문학 분야(10명)가 가장 많았으며, 정치·외교 분야가 5명, 사회·문

¹⁵ 이 글의 분류 범주에는 소속되지 않지만 한국 내에서 태국학 연구를 초기에 견인해온 핵심학자로는 최창성(어문학), 이교충(어문학), 송인서(역사) 등이다. 이들의 연구업적은 이후 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표 5 주요 태국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 연도와 연구 분야

연도	분야	언어	문학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역사	합계
1986		1						1
1990				3 (1)				3
1993				2			(1)	3
1998				(1)				1
2000		2	1	1	(1)			5
2002				(1)		1		2
2003					(1)			1
2005			1					1
2007					(1)			1
2009					1			1
2010			1		1			2
2011		2		(1)				3
2014		1			(1)			2
2015		1			1			2
2016					1			1
합계		7	3	9	8	1	1	29(9)

주: ()는 비어문학 학부 그룹.

화 분야가 4명, 경제 분야가 1명이었다.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국내 대학으로는 고려대학, 동국대학, 성신여자대학, 동아대학, 계명대학, 부산외국어대학이 있었고, 해외 대학으로는 태국의 씨나카린위롯대학(Srinakharinwirot University)과 쭈라롱껀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탐마삿대학(Thammasat University), 송클라대학(Prince of Songkla University), 미국의 서던일리노이스대학(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일본의 교토대학(Kyoto University)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어문학 전공자의 핵심 연구자 그룹은 9명이다. 이들의 박사학위 연구 주제는 태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교대상의 일부로서 태국을 선택한 연구자가 8명,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태국을 다루지 않았지만 학위 취득 후 태국을 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가 1명이

표 6 핵심 태국 연구자의 박사학위 수여 대학

수여대학	연구자명
고려대학	최난옥
계명대학	안종량
동국대학	차상호
동아대학	황규희
부산외국어대학	한선경
서강대학	박은홍
서울대학	김이선, 송경아
성신여자대학	김영애
연세대학	이동윤
한국외국어대학	김홍구, 신근혜, 윤경원, 이병도, 이정윤, 정환승, 최정복, 홍혜련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서보경
쭈라롱껀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이지은
교토대학(Kyoto University)	이미지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상국
송클라대학(Prince of Songkla University)	김규식
서던 일리노이스대학(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서경교
씨나카윗위롯 대학(Srinakharinwirot University)	이한우
탐마삿대학(Thammasat University)	박경은
함부르크대학(University of Hamburg)	조홍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윤진표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심두보

다. 이들 그룹의 학위 논문의 연구 분야를 보면, 정치외교 분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분야 4명, 역사 분야 1명이다. 학위를 받은 대학으로는 서울 대학이 2명, 서강대학, 연세대학 등 국내 대학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 함부르크대학(University of Hamburg),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호주 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등의 해외대학으로 나타났다.

2. 태국 관련 3개 주요 국내 학술지 비교

태국 연구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로는 한국동남아학회에서 간행하는 『동남아시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동남아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동남아연구』, 한국태국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태국학회논총』 등 3개의 학술지가 대표적이다. 이 세 개 학술지 모두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세 개 학술지는 이미 앞서 살펴본 제II장의 학술지 논문 부분에 포함되어 분석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세 개 학술지에 특화하여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하는 이유는 국내 태국 연구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조망하기 위해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학술지는 발행 주체가 다르다. 분석을 통해 세 개 학술지에서 연구자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외대와 비외대 출신 연구자들의 학술지 선택에 있어서 분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 개 학술지의 상호간 저조한 인용 비율 또한 이러한 분리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1)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의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학술지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연 1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연 2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 3회, 2014년 이후 연 4회 발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2년 창간호부터 2016년 26권 1호까지 게재 논문으로 ‘서평’, ‘연구노트’, ‘참관기’, ‘기획좌담’도 포함시켜 산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연구』에 현재까지 게재된 전체 412건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은 56건으로 14%를 차지했다.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태국 관련 논문은 모두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것이며, 외국인 투고자의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

『동남아시아연구』에서 태국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1~2005년으로 18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2006~2010년(10건)이었다. 2006년 이후 동 학술지에서 태국 관련 논문 게재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남아연구』와 『한국태국학회논총』이 등재후보 학술지로 각각 2005

표 7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 건수와 비중 추이

	2000년 이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 현재	합계
전체 건수	92	91	88	134	7	412
타 지역 논문 건수	78	73	78	120	7	356
태국 관련 논문 건수	14	18	10	14	0	56
태국 관련 논문 비율	15%	20%	11%	10%	0%	14%

주: 1. 소수점은 반올림했다.

2. 2000년 이전은 1992년 창간호부터 1999년 8권까지 수치다. 단, 1995년에는 학회지가 출간되지 않았다. 2016년 현재는 26권 1호의 수치다.

표 8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분야별 현황(건수)

언어 · 문학	정치 · 외교	사회 · 문화	경제	역사	합계
17	17	9	8	5	56

년과 2007년 선정됨에 따라 학술지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¹⁶ 또 다른 이유는 외대 특히 한국외국어대학 소속 학자들의 동 학술지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겠다.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언어 · 문학 분야와 정치 · 외교 분야가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 · 문화 분야가 9건, 경제 분야가 8건, 역사 분야가 5건이다. 앞서 전체 학술지 논문 분석에서 56건이나 차지한 이공 및 기타 분야는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동남아시아연구』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논문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동남아연구소가 발행하는 『동남아연구』의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학술지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 1회, 2004년에는 연 3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 2회(2007년에는 1회만), 2010년 이

¹⁶ 『동남아시아연구』는 1998년 07월 01일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3년 1월 1일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후(단, 2013년과 2014년에는 2회) 연 3회 발행되고 있다. 1991년 창간호부터 2016년 25권 3호까지 게재 논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태국 관련 논문도 포함시켜서 산출했다.

이와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체 386건 중 태국 관련 논문은 99건으로 25%를 차지하면서, 『동남아연구』(1992~2016년)가 『동남아시아연구』(1991~2016년)보다 태국 관련 논문의 건수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동남아시아연구』에서는 외국인 투고자의 논문이 한 편도 없었는데 반해, 이 학술지에서는 전체 99건 중 14건의 논문이 외국인 투고자의 논문이었다. 모두 2006년 이후 게재된 논문이었다(표 9 참조).

『동남아연구』에서 태국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1~2015년으로 40건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2001~2005년 12건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동남아시아연구』에서는 2006~2010년에 태국 관련 논문이 크게 감소해 태국 연구의 정체기를 맞이했는데 비해, 같은 시기 『동남아연구』에서는 2006~2010년 태국 관련 논문 비중은 전 분기 17%에서 29%로 크게 증가했다. 2006년 이후 『동남아연구』에서 태국 관련 논문 게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학술지가 2005년 1월 1일부터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록(2010년 1월 1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전체 99건의 논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문학 분야(53건)다. 다음이 사회·문화 분야 18건, 정치·외교 분야 17건, 역사 분야 10건, 경제 분야 1건으로 나

표 9 『동남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건수와 비중 추이

	2000년 이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 현재	합계
전체 건수	61	69	91	150	15	386
타 지역 논문 건수	42	57	65	110	13	287
태국 관련 논문 건수	19(0)	12(0)	26(6)	40(8)	2	99
태국 관련 논문 비율	31%	17%	29%	27%	13%	25%

주: 1. 소수점은 반올림했다. ()는 외국인 투고자 수다.

2. 2000년 이전은 1991년 창간호부터 1999년 8권까지 수치다. 단, 1998년에는 학회지가 출간되지 않았다. 2016년 현재는 5권 3호의 수치다.

표 10 『동남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분야별 현황(건수)

언어 · 문학	정치 · 외교	사회 · 문화	경제	역사	합계
53	17	18	1	10	99

타났다. 앞서 살펴본 『동남아시아연구』보다 언어 · 문학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연구』에서 17건(30%)의 언어 · 문학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동남아연구』에서는 세 배 이상인 53건(54%)이었다.

3) 『한국태국학회논총』

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학술지 『한국태국학회논총』 게재 논문의 분야별,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1988년 창간호부터 2015년 22권 1호까지 분석했다. 단, 2003년 제10호가 학회 홈페이지 등에 부재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발행되지 않았으며 1991년 제4호에 이어 1994년에 제5호가 발행되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1회 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 매년 발행되며, 2008년 15권 이후 연 2회 발행되고 있다. ‘특별기고’와 ‘연구노트’, 외국인 게재자도 포함시켜 산출했다.

표 11과 같이 『한국태국학회논총』은 1990년 이전 24건의 논문이 수록된 것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등재후보지 선정과 함께 2006~2010년 46건, 2011~2015년 8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태국 연구 전문 학술지로서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1988년 창간호부터 2015년 22권 1호까지 동 학술지에 함께 225건의 논문이 게재되면서, 앞서 살펴본 두 학술지, 즉 『동남아시아연구』 56건과 『동남아연구』 98건과 비교해서 『한국태국학회논총』이 태국 관련 국내 최대의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 언어 · 문학 · 교육이 101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 문화 56건, 정치 · 외교 33건, 경제 · 경영 · 무역 18건, 역사 13건, 기타 3건,¹⁷ 선교 · 신학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 · 문학 · 교육 분야의 논문이

¹⁷ 기타에는 “태국의 왕도건축 연구”(노장서, 2009, 16: 1)라는 제목의 연구노트, “동남아 지역연구

표 11 『한국태국학회논총』 게재 논문의 분야별 현황(건수)

	경제·경영· 무역	정치·외교	언어·문학· 교육	역사	사회·문화	선교·신학	기타	합계
1990년 이전	3	5	11	5	0	0	0	24
1991~1995	1	3	4	3	4	0	0	15
1996~2000	4	6	10	0	11	0	0	31
2001~2005	1	3	11	1	6	1	0	23
2006~2010	2	7	21	1	13	0	2	46
2011~2015	7	9	44	3	22	0	1	86
합계	18	33	101	13	56	1	3	225

표 12 『한국태국학회논총』 내국인과 외국인 논문 건수와 비중 추이

	1990년 이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합계
전체 건수	24	15	31	23	46	86	225
내국인 논문 건수	21	11	27	14	28	59	160
외국인 논문 건수	3	4	4	9	18	27	65
외국인 비율	13%	27%	13%	39%	39%	31%	29%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게재된 논문 합계 86건 중에서 언어·문학·교육 분야가 44건을 기록하면서 전체 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두 학술지에 비해 언어·문학 분야의 논문이 『한국태국학회논총』에 특히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어문학 관련 논문 건수는 『동남아시아연구』가 17건, 『동남아연구』가 53건, 『한국태국학회논총』이 101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동 학술지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어문학을 전공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 소속의 학자들이며, 이들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게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를 위한 시론적 제언”(소병국, 2012, 18: 2) 등의 논문이 있다.

에서 2010년 약 10년간 외국인의 논문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두 학술지와 비교되는 특징이다. 그 이유는 『한국태국학회논총』은 태국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로서 매년 발간되는 태국 관련 논문이 양적인 면에서 다른 두 학술지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내 태국 연구가 아직까지 신진학자로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여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조건, 특히 논문의 양적 충당 및 투고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한국태국학회논총』은 2007년 1월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등록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현재 한국의 태국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태국학회논총』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인과 태국인 연구자에 의한 태국어로 집필된 논문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 학술지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태국어가 허용되고 있다.

4) 학술지 간 분리 양상

앞서 태국 연구자의 분류에서 현재 한국학계(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연구자는 크게 어문학과 비어문학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동남아시아연구』에서 태국 관련 논문의 비율이 줄어든 요인의 하나로 동 학술지에서의 외대 소속 학자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지적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세 개 학술지의 외대와 비외대 학부 출신 연구자 비중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내 태국 연구자들의 학술지 선호도 차이에 따른 분리 현상을 밝히고자 한다.¹⁸ 국내 태국 연구가 한국외국어대학에 태국어과가 설치되면서 발전해왔으며, 초기 태국 연구를 외대 소속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견인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클 것이다.

표 13과 표 14는 각각 『동남아연구』와 『한국태국학회논총』의 비외대/한국외대 출신 연구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외국인 게재자를 제외한 『동남아

¹⁸ 한국학계의 동남아 연구와 관련된 내적 분리현상은 김형준·전제성이 2013년에 학술지 『아시아리뷰』에 게재한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에서 지적한 바 있다. 태국 연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13 『동남아연구』 태국 관련 게재 논문 중 비외대/한국외대 학부 출신 연구자의 비중(건수)

	2000년 이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 현재	합계
태국 관련 논문 전체	19	12	20	32	2	85
비외대	1	0	1	10	0	12
한국외대	18	12	19	22	2	73
한국외대 비율	95%	100%	95%	69%	100%	86%

주: 1. 외국인 게재자를 제외한 수치다.

2. 2000년 이전은 1991년 창간호부터 1999년 8권까지 수치다. 단, 1998년에는 학회지가 출간되지 않았다. 2016년 현재는 2016년 25권 3호의 수치다.

표 14 『한국태국학회논총』 게재 논문 중 비외대/한국외대 학부 출신 연구자의 비중(건수)

	1990년 이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합계
전체	21	11	27	14	28	59	160
비외대	4	5	1	5	13	20	48
한국외대	17	6	26	9	15	39	112
한국외대 비율	81%	55%	96%	64%	54%	66%	70%

주: 외국인 게재자를 제외한 수치다. 2인 공저에서 어느 한쪽이 한국외대 학부 출신일 경우, 한국외대 논문으로 계산했다.

연구』의 태국 관련 전체 논문 85건 중 한국외대 출신의 논문이 73건으로 그 비율은 86%에 달한다. 반대로 비외대 출신의 논문은 12건에 불과했다. 2010년까지 90% 이상을 차지하던 비율은 2011년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2015년 기간 중에는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연구 인력이 편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외대 출신자의 비율이 감소했다.

한편 외국인 게재자를 제외한 『한국태국학회논총』은 전체 논문 160건 중 112건이 한국외대 출신의 논문이었으며, 그 비율이 70%에 달하지만 『동남아연구』보다는 오히려 한국외대 출신 게재자의 비율이 낮았다. 특히 2006년 이후 비외대 출신 학자들의 논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1~2015년의 수치를 보면 전체 59건 중 외대 출신자 논문이 39건, 비외대 출신자 논문이 20건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논문 27건을 포함해 생각하면 오히려 비외대 출신 학자들의 게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출신 연구자의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비율은 2001~

표 15 『동남아시아연구』 태국 관련 게재 논문 중 비외대/한국외대 학부 출신 연구자의 비중(건수)

	2000년 이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 현재	합계
태국 관련 논문 전체	14	18	10	14	0	56
비외대	7	6	9	7	0	29
한국외대	7	12	1	7	0	27
한국외대 비율	50%	67%	10%	50%	0%	48%

주: 1. 1992년 창간호부터 1999년 8권까지 수치다. 단, 1995년에는 학회지가 출간되지 않았다.
2. 2016년 현재는 26권 1호의 수치다.

2005년에 가장 높으며, 비외대 출신의 두 배에 이르렀다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동남아시아연구』와 『한국태국학회논총』이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어문학 전공 출신이 많아서 『한국태국학회논총』에 투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문학 전공자들이 『한국태국학회논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태국학회논총』은 어문학 관련 논문의 게재율이 높으며, 『동남아시아연구』는 지역연구나 사례연구 중심의 논문 게재율이 높은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외대 출신자의 게재 비율이 높은 학술지로는 『동남아시아연구』가 86%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한국태국학회논총』(72%)이 따른다. 게재 비율이 가장 낮은 학술지는 『동남아시아연구』(48%)다. 논문 건수로 보면 『한국태국학회논총』이 112건으로 가장 많으며, 『동남아시아연구』가 73건, 『동남아시아연구』가 27건이다.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는 『한국태국학회논총』과 『동남아시아연구』 두 학술지에 교차 게재하는 한국외대 학부 출신의 학자 수와 학술지 간 인용빈도 현황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동남아시아연구』와 『한국태국학회논총』을 비교할 때 학술지 간 연구자 교차 게재가 다소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두 학술지에 교차 게재하는, 즉 한 번이라도 두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전체 연구자는 모두 14명인데 이중 한국외대 출신은 10명이다. 『한국태국학회논총』에만 게재한 한국외대 학부 출신 연구자는 11명으로 두 학술지에 교차 게재하는 연구자보다 많았다. 교차 게재하는 연구자라고 할지라도 게재 빈도 수에서는 『한국태국학회논총』이

표 16 두 학술지 투고자 중 한국외국어대학 학부 출신 연구자¹⁹

『한국태국학회논총』에만 게재	『동남아시아연구』에만 게재	두 학술지 교차 게재
11명	0명	10명

『동남아시아연구』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세 학술지 간 분리 양상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세 학술지에서 상호 인용한 비율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7월 15일 기준, 『동남아시아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는 자기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가 25.7%의 인용비율로 전체 1위였으며, 『동남아시아연구』는 1.3%로 전체 8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태국학회논총』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동아연구』(6.7%), 『한국문화인류학』(5.2%), 『비교문화연구』(3%), 『한국정치학회보』(1.9%) 등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연구』가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 자기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가 인용비율 25.7%로 1위를, 그 뒤를 이어 『동남아연구』가 13.5%로 2위, 『한국태국학회논총』이 9.5%로 3위다. 즉 『동남아시아연구』는 자기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인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연구』와 『한국태국학회논총』은 『동남아시아연구』를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다.

한편 『동남아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는 자기 학술지인 『동남아연구』가 14%로 1위를, 그 뒤를 『동남아시아연구』가 비슷한 비율인 13.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태국학회논총』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남아연구』가 많이 인용된 학술지로는 『동남아연구』 14%(1위), 『한국태국학회논총』 4.8%(2위), 『동남아시아연구』 1.3%(4위)다. 즉 『동남아연구』는 자기 학술지와 비슷한 비율로 『동남아시아연구』를 인용하고 있었다.

『한국태국학회논총』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로는 자기 학술지인 『한국태국학회논총』이 전체 1위로 16.7%, 그다음으로 『동남아시아연구』가 9.5%(전체 2위), 『동남아연구』가 4.8%(전체 5위)다. 한편 『한국태국학회논총』이 많이 인용된 학술지로는 같은 학술지인 『한국태국학회논총』이 16.7%로 전체 1위를, 『동남아연구』

¹⁹ 한국외국어대학 학부 출신 연구자의 분리현상에 대해서는 김형준·전제성(2013) 논문을 참고했다.

구』가 0.9%로 2위를, 『동남아시아연구』가 0.2%로 4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 간 격차가 크며, 타 학술지에서 『한국태국학회논총』이 인용된 비율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동남아연구』와 『한국태국학회논총』에서는 『동남아시아연구』를 인용한 비율이 높은 데 비해 『동남아시아연구』는 두 학술지의 인용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동남아시아연구』의 다른 두 학술지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태국학회논총』은 어문학 전공 논문이 많이 게재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연구』에는 지역연구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분리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태국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되는 『동남아연구』에서 인용한 학술지 순위에 『한국태국학회논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국 관련 최대 전문 학술지인 『한국태국학회논총』은 내적 충실도 달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한국에서 태국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경제 관련 석사학위 논문이 최초로 제출되면서 시작되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달성해왔다. 국내 최대 태국 관련 학술지인 『한국태국학회논총』을 비롯해서, 『동남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등 세 학술지에서만 최근 5년간 매년 30여 편의 태국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태국 연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연구 분야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학문적 인프라 구축 또한 갖추어졌다.

한국 내 동남아 연구 사례를 수행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보면, 한국 내 태국 연구는 어문학 및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타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물론 각각의 선행 연구마다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분야별로 보면, 한국 내 미얀마 연구는 정치·국제관계 분야의 연구가 어문학의 세 배 이상을 넘으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 문화, 역사와 같은 인문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오윤아, 2013: 152, 156). 한편 한국 내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학술지 논문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 정치·외교, 경제·경영, 이공 분야가 언어·문학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치·외교 분야는 언어·문학의 두 배가 넘었다(김형준·전제성, 2013: 86). 학위 논문에서는 최근 어문학 분야가 증가 추세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경영·무역, 정치·외교, 사회·문화 분야보다 낮았다(김형준·전제성, 2013: 83). 정미경(2014)의 한국 내 캄보디아·라오스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정치 및 국제관계,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정미경, 2014: 117). 한편 베트남의 경우 어문학 분야가 타 국가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역사나 사회, 경제·경영 분야보다는 저조했다. 베트남과 관련된 학위 논문에서는 경제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우, 2013: 118).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 어문학 분야보다 타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김형준, 2013: 112, 118).

전체적으로 한국 내 태국 연구는 언어·문학·교육 분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학위 논문과 학술지, 단행본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크며, 오히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편입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태국이 타 동남아국가보다 경제·경영과 관련된 연구가 저조한 이유는 아마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비교했을 때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 동남아 개발원조 또한 CLMV 국가,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경제 분야보다는 어문학 및 교육, 사회·문화 분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태국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학계의 태국 연구가 직면한 과제를 정리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난 학술지 간 분리 양상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숙제다. 연구자에 따른 학술지 선호도의 차이, 학술지 간 저조한 인용빈도가 분리 양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전공에 따른 학술지 선호도 차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술지

간 저조한 인용빈도는 장기적으로 학계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학술지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동남아 연구』와 『동남아시아연구』 두 학술지 모두 인용한 학술지 순위(2016년 7월 기준)에 태국 연구의 국내 최대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태국학회논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타 학술지가 갖는 동 학술지에 대한 ‘편견’ 및 배타적 태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태국학회논총』이 내적 성장을 충실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차세대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태국 연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부분을 소수 연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부정할 수 없다. 수요 과잉에 대한 공급 부족은 일부 학술지에서는 외국인 투고자 비율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셋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국내에 제출된 석·박사학위 논문 절반 이상을 이들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태국인 유학생의 유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태국 연구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015년까지 16명의 박사과 109명의 석사가 한국에서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연구하는 주제는 주로 한류나 한국과 태국 양자 간 관계에 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의 대학원에서 동남아 유학생이 선택하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노력과 함께 한국에서 수학을 마친 외국인 졸업생들의 꾸준한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장학금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국 한국과 태국 학계의 양자 간 관계 및 국내 태국 연구의 질적 강화로 연결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에서 한국이 동남아 연구 중심국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행본 및 대중서 발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태국 연구 역사에 비해 단행본 출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연구자들의 단행본 집필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접근하기 쉬운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박사 학위 취득 후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분위기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학위 논문의 단행본 출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 차원에서 확보하는 방향도 제언한다. 학위 취득

후 학위 논문을 전자도서관에서 전문 공개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박사학위 논문이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전까지 부분 공개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투고일: 2016년 12월 12일 | 심사일: 2017년 1월 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22일

참고문헌

- 강영문. 2010. 『동남아 지역연구』, 두남출판사.
- 강영문. 2013. 『동남아 경제의 그늘과 무지개』, 전남대학교출판부.
- 강영문. 2015. 『동남아 이슬람문화와 비즈니스』, 전남대학교출판부.
- 고홍명. 1976. “태국의 경제사회 개발계획과 개발재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웅 외. 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 김영애. 1986. 『태국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영애. 2005. “한태 현대소설 비교연구: 염상섭과 씨부라파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수. 1975. “태국과 파키스탄에 있어서의 정치와 군부: 군부의 정치개입을 중심으로 하여.” 『법학연구』 18권 1호, 125-141.
- 김이선. 2003. “관광 발달에 따른 타이 수공예품의 생산과 의미체계의 변화: 치앙마이 목공예 생산지 반타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하림 외. 2011. 『다문화의 이해』, 조선대학교출판부.
- 김형중. 2013.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제3권 2호, 107-138.
- 김형준 · 전제성. 2013.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아시아리뷰』 제3권 2호, 73-108.
- 김홍구. 1984. “타이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연구(1932~197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홍구. 1990. “타이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연구(1932~197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홍구. 1996. 『태국 군과 정치』, 전예원.

- 김홍구. 1998. 『태국학 입문』.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홍구. 2005. 『태국불교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홍구. 2006. 『한권으로 이해하는 Thailand』.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홍구. 2008. 『태국 정치입문』.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홍구. 2016. 『태국문화의 즐거움』. 스토리하우스.
- 김홍구 외. 200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폴리테이아.
- 김홍구 외. 2006. 『동아시아의 한류』. 전예원.
- 김홍구 외. 2012. 『한국 속 동남아 현상』. 명인문화사.
- 김홍구 외. 2014.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명인문화사.
- 노장서. 2009. “태국의 왕도건축 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16권 1호, 147-178.
- 문인원. 1982. “태국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국왕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밀턴오스본 저. 조홍국 역. 2000.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 박은경. 1979.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 화교의 Ethnic Identity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11권 1호, 145-162.
- 박은영. 1983. “동양과 서양의 도서관학 교육에 관한 고찰: 미국 · 영국 · 태국 · 홍콩.” 『연구논총』 11권 1호, 63-109.
- 박은홍. 1997. “발전도상국 공공경제의 정치경제: 타일랜드 국영기업 부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홍 외. 1999.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정록. 2016. 『춤 문화로 본 태국』. 보고서.
- 소병국. 2012.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시론적 제언.” 『한국태국학회논총』 18권 2호, 101-121.
- 송경아. 2011. “타일랜드 공공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탁신정부의 전국민의료 보장제도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인서. 1973. “쭈라롱컨대왕과 태국의 근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인서. 1974. “Rama V(1868~1910)시대의 태국의 사회개혁에 관한 소고.” 『史學志』 8권 1호, 69-86.
- 송인서. 1975. “태국의 근대화과정: Chulalongkorn시대(1868~1910)를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18권 2호, 153-188.
- 신근혜. 2010. “『쿤창쿤팸』의 완텅과 『춘향전』의 춘향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쭈멧 춤사이 저. 노장서·김인아 역. 2014. 『물의 신 나가: 태국과 서태평양의 문화적 기원』. 솔과학.
- 쭈팻트라 쭈팻 저. 황규희 역. 2001. 『태국 사회와 문화』.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안종량. 1984. “타이어시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종량. 2002. “한-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종량. 2004. 『태국 경제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오윤아. 2013. “한국의 미얀마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제3권 2호, 139-160.
- 윤경원. 2000. “태국 수동구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진표 외. 1994.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프레스사.
- 윤진표 외. 2001. 『동남아의 정당정치』. 오름.
- 윤진표 외. 2005.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폴리테이아.
- 이교충. 1966. 『태국어 기초』. 신신출판사.
- 이동윤. 2002.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미주주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병도. 1984. “태국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도. 2000. “태국 정당정치의 변동과 제도화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병도 외. 1999.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이상훈. 1983. “한국기업의 대 태국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世友』 5권 1호, 120-130.
- 이정윤. 2016. “태국의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한우. 2003. 『태국의 전통 생활풍속』. 푸리문화사.
- 이한우. 2013.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아시아리뷰』 제3권 1호, 109-158.
- 임종욱. 1967. “동남아 시장의 건오징어 수출 증진책에 관한 연구: 태국시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 2014. “한국 학계의 캄보디아·라오스 연구: 현황과 쟁점.” 『아시아리뷰』 제4권 1호, 95-136.
- 정진화. 2015. 『제왕과 불교』. 불교정신문화원.
- 정환승. 2000. “태국어의 사동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환승. 2015. 『한국-태국 관계사』. 폴리테이아.
- 조흥국. 2007. 『태국-불교와 국왕의 나라』. 소나무.

- 조흥국. 2009.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 조흥국. 2015. 『근대 태국의 형성』. 소나무.
- 조흥국 · 소병국. 2004. 『불교군주와 슐탄-태국과 말레이시아 왕권의 역사』. 전통과 현대.
- 조흥국 외. 2005.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 폴리테이아.
- 짬렁 씨므영 저. 김영애 역. 1990. 『짬렁, 내 삶의 이야기』. 창.
- 차상호. 1980. “태국의 입헌 혁명과 그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상호. 1990. “태국 정치에 있어서의 피분 정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차상호. 1995. 『태국 현대정치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차상호. 2003. 『태국 현대 민주정치론』.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천정웅 외. 2015. 『아시아의 이해: 사회와 문화』. 양서원.
- 최난옥. 2000. “한국 · 태국 근대문학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정복. 2009. “태국 매매춘 산업을 통해 본 국가정책, 불교, 성담론: 치앙마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창성. 1969. 『타이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최창성. 1976. “타이 정치에 미친 불교의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창성. 1983. “태국문자의 기원에 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16권 1호, 351-375.
- 툼 플레이트 저. 김이숙 역. 2013. 『탁신과의 대화』. 끌리는 책.
- 파썸 풍파이젯 · 크리스 베이커 저. 정호재 역. 2010. 『탁신 아시아에서의 정치비즈니스』. 도서출판 동아시아.
- 한국태국학회. 1998. 『태국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한국태국학회. 2008. 『한태 관계의 어제와 오늘』. 세종출판사.
- 한국태국학회. 2011. 『동아시아와 태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태국학회.
- 한선경. 2015.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혜련. 2014. “태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내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규희. 1983. “태국의 정치발전과 10월 혁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규희. 1993.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 분석, 1976년 군부쿠데타.”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규희. 1998. 『태국 정치와 군부』.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황규희 외(박장식 엮음). 2012. 『죽인 동남아시아』. 슬과학.
- Bhandhumachinda, Nitipat. 199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ailand by Korean Companies." M.A. Thesis. Yonsei University.
- Jeon, Jei-Guk.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Micro-variat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Patterning: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Jo, Heung Gug. 1993. "Die Politische Geschichte Thailands unter der Herrschaft Konig Narais: r.1656-1688." Ph.D. Dissertation. Universität Hamburg.
- Kim, Tuk-yul. 1971. "Man's Concept of God Reflects His Cultural Value System as Illustrated in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 in Korea, Japan, Thailand, Singapore, Indonesia: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延世論叢』 8권 1호, 103-116.
- Lee, Ji-Eun, 2010. "How to make a Monster: Otherness in Contemporary Thai Horror Film." Ph.D. Dissertation. Chulalongkorn University.
- Lee, Mi-Ji. 2015. "A Comparison of Japanese and Korean Media Strategies towards Southeast Asia: A Case Study of Thailand and Her Expanding Media Market." Ph.D. Dissertation. Kyoto University. (In Japanese)
- Lee, Sang-Kook. 2007. "Integrating Others: A Study of a Border Social System in the Thailand-Burma Borderland." Ph.D.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Moon, Chang-Jin. 1986. "Women's Work and Fertility Preference in a Developing Society: Central Thailan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Park, Kyeong-Eun. 2011. "A polysemy of /gada/ in Korean in Comparison to /pai/ in Thai: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Ph.D. Dissertation. Thammasat University.
- Pratom,Sangswarnng. 1968. "Demand and Suppl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ailan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 Bo-Kyeong. 2014. "Suturing the World: the Micro-practices of Care and the Politics of Life in Chiang Mai."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Seo, Kyoung-Kyo. 1993.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the Prospects for Democracy: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in Comparative

-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Sim, Doo-Bo. 2000. “Korean Big Business Awakens to Media Indust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Woo, Tong-Ki. 1984. “Squatter Housing Settlements in Bangkok, Thailand.” 『환경연구』 4권 2호, 39-50.
- Yoon, Jin-Pyo. 1990.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ture and Role of the State in Indonesia, Thailand, and Vietna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Abstract

Thai Studies in Korea: Trends and Issues

Hongkoo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iji L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features and issues of Thai studies in Korea and to determine its future directions by examining present research studies. Scholarly interest in Thailand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mid-1990s. Based on Ph.D. dissertations, MA theses, journal articles and book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quantitative growth of research in Thailand studies up to the present time.

Studies on Thailand in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Recently this trend has been accelerated by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Thai foreign students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Thai studies in Korea by suggesting the need for overcoming the divided outcomes of completed studies, the training of next-generation researchers, ongoing management for Thai students (the graduates) studying in Korea, the development of a network, and the creation of an academic system designed to publish works in book form.

Keywords | Thailand, Korea, Southeast Asia, Thai Studies, Case studies